



해외

WORLD

왕축, 갈와 로레빠 환생 주장

인도 다르질링 드룩파 산각 초엘링 수도원서 수행

미국의 평범한 11세 학생이었던 한 소년은 인도에서 수 천명의 불교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비 왕축(Jigme Wangchuk · 11 · 사진)이 그 주인공.

다람살라에서 20년 전에 보스턴으로 옮긴 티베트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보통 아이들처럼 놀지 않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왕축은 자신이 1250년 티베트에서 죽은 승려인 갈와 로레빠(Galwa Lorepa)라고 주장하며 당시 일들을 설명했다.

소년의 부모는 "2년 전부터 왕축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어린애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줄로만 여겼는데 우리도 가족들과 인도를 성지순례한 뒤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러 소년의 부모는 "인도 마이소르 지방을 여행하던 도중 왕축은 낯선 사원 터에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졌다가 나와 자신을 갈와 로레빠라고 말하며 전생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왕축은 삼대 상태에서 지붕에 35피트 규모의 용모양 조형이 있는 티베트의 유명한 불교사원을 묘사하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찰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본 스님들은 소년이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학파의 창시자인 갈와 로레빠가 환생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왕축은 최근 환생한 스님인 린포체가 돼 열 살 난 여동생과 함께 인도 다르질링(Darjeeling) 등



부에 있는 드룩파 산각 초엘링(Drukpa Sangak Choeling) 수도원에 머물고 있다.

네팔, 부탄, 티베트 등지의 많은 신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도 20년 동안 미국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 사업을 접고 아들이 머물고 있는 사원 근처로 집을 옮겼다.

왕축의 어머니 데첸은 "지난 2년 동안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다. 5개월 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다"며 "다르질링으로 가던 중 우리가 아들에게 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는 그의 신자들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왕축은 "보스턴에서의 학창 시절이 그리워지겠지만 새로운 역할에 만족한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내나 기자

“내 죽음이 독립운동 위촉시킬 것”

달라이 라마 우려... 오바마 대통령 방중시 티베트 인권 거론

달라이 라마(사진)가 그의 죽음이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을 역행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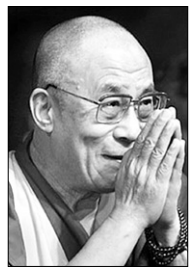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는 로마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11월 18일 "내가 죽게 되면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은 한 층 수그러들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제5차 티베트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그는 "매우 건강하고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은 티베트를 이끌어갈 잠재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11월 17일 중국을 방문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선언하며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대신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국이 핵 비확산과 군사적 투명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오바마 대



통령이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의 '티베트' 발언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 라마는 "미 백악관은 지속적으로 티베트를 지지해 주고 있다"며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은 인권 침해 및 폭력 사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 그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웃음을 보이며 "베이징과 워싱턴간의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이내나 기자

“다문화 가정 위한 교육지원 시급”

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 토론회’서 박성현 교수 주장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110만 명이 넘는다. 이중 결혼 이주민은 16만7000명,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10만7000여 명으로 조사 됐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이탈률이 초등학교 15%, 중학교 35%, 고등학교 60%로 드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 CMCK)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CMCK는 11월 17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무원 스님(CMCK 정책자문단장, 한나라당 진영 의원(국회다문화포럼), 박성현 교수(서울대) 등 50여 전문가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다문화건설을 위해 교육만큼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없다”며 “내외국민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의 틀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오른쪽부터 이현정 소장, 최병환 교장, 김의숙 교수, 이재분 연구위원, 홍종명 교수, 이혜진 사무관.

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성현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이탈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미등록이주(불법체류자)의 자녀와 중도에 편입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을 볼 때 교육 소외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수준이 아니라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문화가정이 신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성장기에 형성된 소외의식으로 반사

회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교육지원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분 수석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주제발표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과 과제’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로 이주 여성들이 결혼 후 현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면서 발생하는 중간입국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9000여 명, 중도 편입된 다문화 가정 자녀는 1만 명을 넘었다. 2만 여 아동·청소년들이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며 “다문화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지원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에 제시한 대안은 △가족 구성원을 함께 고려한 가족단위의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 등이다. CMCK 연구소 이현정 소장은 ‘한국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다문화예비학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레인보우 코리아 합창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중 2명이 중도입국 자녀인데 한국어가 서툴러 스스로 위축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단적인 예만 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시급할 때”라며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전진은 교육에 달려있다. 그 교육은 △내국인 자녀를 위한 타문화 이해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한국문화교육 등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최병환 교장(서울 인현초), 홍종명 교수(한국외대), 이혜진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이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02)737-0467

이내나 기자 bohuyng@buddhapia.com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열린다

종단합 12월 4일 AW컨벤션센터서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4일 AW컨벤션센터에서 2009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

1, 2부로 나뉘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사회복지포럼, 자비나눔대법회 및 만찬이 펼쳐진다.

제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불교사회복지와 마음치유’라는 주제로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이 ‘현대사회의 심리치료와 불교의 마음치료’를,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가 ‘초기불교 입장에서 본 마음치유-불교사회복지의 가

능성 모색’을, 이혜숙 강사(동국대)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마음치유’를 발표한다.

제2부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자비나눔 실천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발굴·포상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본행사인 자비나눔대법회에서는 자비나눔유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속행사로 △전통문화체험관 △자비나눔사진전 △자비나눔홍보관 △다문화특별관 등 홍보부스를 만들어 불교계 자비나눔기관 소통을 증진시키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02)723-5101

이내나 기자

효 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노인복지센터 제3회 맑은세상 한마당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삼)는 11월 16일 ‘제3회 맑은세상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孝)을 계승하고자 특별히 기획된 봉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 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김상사 주지, 덕현 스님, 선원장 천호 스님 및 (사)맑고향기롭게 회원 70여 명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덕현·천호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덕현 스님은 “음식 나누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성찰하는 계



왼쪽부터 덕현·천호 스님이 가삼 스님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1994년 발의한 순수시민체제로 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 (02)6911-9555

이내나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편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